제8회 '세계 물의 날' 기념 행사 개최

물보전에 대한 국민적 의지와 관심 고조

한국수자원공사는 21세기 들어 처음으로 맞이한 제8회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를 김대중 대통령 내외와 김윤기 건설교통부 장관, 김명자 환경부 장관 등 정부기관, 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3월 22일 장충체육관에서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물의 날 기념 연설을 통해 과도한 물 사용으로 머지않아 물부족 현상이 예상된다며, 정부에서는 절수형 누진수도요금 제도를 통한 물값 현실화, 물 절약기기의 확대보급 등의 수요관리로 국민들의 물 사용량을 줄이는 한편, 누수관 교체, 농어촌 및 도서지역의 상수도 시설의 대폭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물관리와 연구에 공로가 큰 윤용남 고려대 교수 등 개인과 단체 67명을 포상했으며, UN 메시지 전달, 물사랑 실천 선언, 물사랑 캠페인송 "온땅을 숨쉬게 하는 물" 합창이 이어졌다.

특히 수자원공사가 제정한 물사랑 캠페인송은 물의 소중함에 대한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달하여 행사장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켰다.

또한 식전 행사로 우리의 물부족 현상을 집중 조명한 영상물 상영과 "생명의 근원, 물의 탄생"이라는 주제의 무용공연이 있었으며, 행사장 입구에서는 물사진 공모전 입상작 60여점이 전시되어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과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도 3월 24일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와 공동으로 수자원연구소에서 "21세기의 물"이라는 주제로 물심포지엄 2000을 열었으며, 전국 다목적댐, 용수 전용댐, 취수원 주변에서 직원, 지자체, 군부대, 여성단체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수지 대청결 운동을 벌였다.

한편, 이번 물의 날 행사를 통해 한국수자원공사는 물을 다루는 국내 최고의 물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과 그 중요성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물을 아끼고 보전하자는 국민적 의지와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한국 표준형 원전 울진 4호기 준공

국내 원전기술 우수성 세계 입증

한국 표준형 원전인 울진 4호기 준공식이 지난 2월 24일 박태준 국무총리, 김영호 산업자원부 장관, 최수병 한전 사장, 신 정 울진군수 등 주요인사와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울진군 북면 울진원자력본부 현지에서 열렸다.

박태준 국무총리는 이날 준공식 치사를 통해 "전력수요가 나날이 늘어나고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화석연료의 사용규제가 갈수록 강화되는 현실에서 대체에너지의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원자력만이 자원문제와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에너지원"이라고 강조하고, "원전 안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원자력산업에 대해 지속적인 이해와 협조를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98년 9월에 준공된 울진 3호기에 이어 한국표준형 원전으로는 두 번째로 건설된 울진 4호기는 '92년 5월 본관 기초굴착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건설에 들어가 '95년 11월 핵심설비인 원자로를 설치하고, '98년 10월 원자로에 핵연료를 장전한후, 발전소의 안전성을 최종 확인하는 시운전 시험을 거쳐 '99년 12월 31일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울진 원전 4호기 건설사업은 한전이 종합사업 관리와 시운전을 수행하고, 설계는 한국전력기술, 원자로와 터빈발전기 등 주기기 제작은 한국중공업, 원전연료는 한전원자력연료, 그리고 시공은 동아건설산업과 한국중공업이 각각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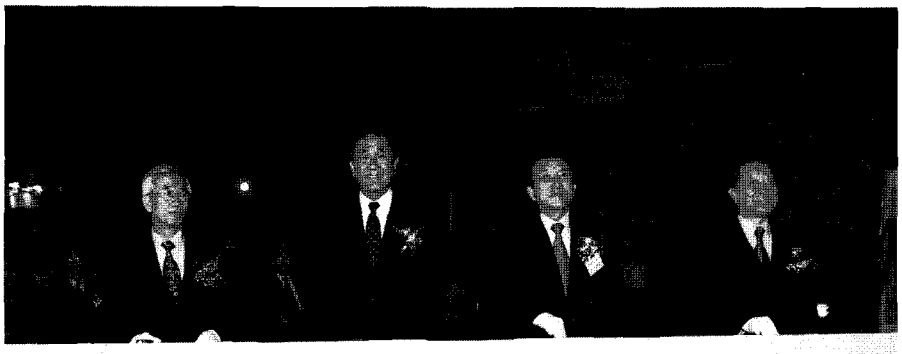
이번 울진 원전 4호기 준공으로 우리나라의 원전설비는 모두 16기, 1,372만kW가 되었으며, 국내 총발전설비의 약29%, 총발전량의 40%이상을 차지하는 주력발전원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국가경제 발전의 원동력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100만kW급 가압경수로형 원전인 울진 원전 4호기는 북한 신포에 건설중인 KEDO원전의 모델형으로서 우리의 우수한 원전기술과 원전 선전국으로서의 위상을 전 세계에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우리의 원전기술이 중국 등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도 확고하게 갖추게 되었다.

울진 원전 4호기는 앞으로 연간 약 70억kWh의 전력을 생산하여 2000년대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앞바다 6-1광구 가스전개발 공식선언

'동해-1' 명명 2002년 7월부터 상업생산



울산앞바다(6-1광구)가스전 개발선

한국석유공사는 지난해 6월 경제성이 확인된 울산 앞바다 6-1광구 가스전 개발에 본격 착수해 2002년 7월부터 상업생산을 개시하게 된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2월 23일 김영호 산업자원부 장관, 서석재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 등 각계 주요인사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 앞바다 6-1광구 가스전의 개발 선언식을 거행하고 역사적인 대륙붕 가스전의 본격 개발 개시를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천명하였다.

정부는 이번 행사에서 가스전 개발선언과 함께 가스전의 정식명칭을 '동해-1'로 명명하고 가스전 발굴 유공자들에 대해 포상했다.

정부는 지난 1979년 한국석유개발공사를 설립, 자주적인 석유개발에 착수했다. 1987년 6-1광구 돌고래Ⅲ구조 시추에서 국내 최초로 가스를 발견했지만 매장량은 미미했다.

그후 고래Ⅰ구조 등을 시추한 끝에 고래Ⅴ구조에서 경제성있는 가스를 확인한 것이다.

고래Ⅴ구조의 가채매장량은 2천5백억~3천억 입방피트(LPG기준 5백만~6백만톤)로 추정된다.

이번 가스전 개발선언식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가스전의 본격 개발에 착수하게 되는 바, 금년 7월까지 기본 생산계획을 확정하고 2001년 3월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마치며 2002년 6월까지 생산설비 제작 및 건설을 완료한 후 2002년 7월부터 가스를 생산, 울산광역시와 경상도 일대에 약 15년간에 걸쳐 가스를 공급하게 된다.

가스전의 총수입은 약8.6억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중 탐사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총투자비 약 3.2억불을 제외한 수익은 5.4억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가스전 개발을 통해 약 15년간에 걸쳐 LNG 3.4백만톤~4백만톤 규모의 가스수입을 대체함으로써 무역수지 개선은 물론 가스생산시설 건설에 따른 엔지니어링 및 해양건설 등 관련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가스전 개발에 따른 이익은 국내 대륙붕개발을 위한 재투자재원으로 활용되어 대륙붕 개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에서 직접 가스를 개발 생산하게 됨으로써 가스전 생산 및 관리운영 등 관련기술의 축적이 가능하고 국내 대륙붕개발에 대한 해외 석유회사들의 관심을 환기시켜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4천4백57억원 지원

자발적협약 50%, ESCO 44.4% 지원확대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올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전년도 대비 8.1% 증가한 4,457억원으로 편성하여 2월부터 저리로 지원키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자금수요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자발적 협약(VA) 체결기업 및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에 대한 지원규모를 각각 전년대비 50% 및 44.4% 증액하고, 서민층에 주로 지원되는 주택단열 개수자금도 전년대비 100% 증액하였다.

중소기업 및 벤처형 에너지절약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의 지원대상 투자조합의 인정범위를 현행 "에너지절약전문투자조합" 이외에 에너지관리공단이 인정하는 신기술투자조합 및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으로 확대했다.

또한 중소 고효율기자재 제조업체 및 ESCO업체에 지원되는 운전자금의 지원범위를 전년도 매출액의 1회전(3개월)분에서 2회전(6개월)분으로 확대 (5억원 한도, 1년거치 2년분할 상환)하였다.

지원분야와 지원한도 확대를 위해서는 절약효과가 큰 변전설비패키지 시스템 등 10개품목을 신규로 지원대상시설에 포함하고, 폐열이용 관련 자금지원의 범위를 종전의 폐열이용 보일러 설치금액에서 폐열이용보일러 및 에너지를 타사업장에 공급하기 위한 시설금액으로 확대하여 폐열이용을 통한 이윤추구도 가능토록 했다.

기후변화협약의 주요 대응책이 되고 있는 자발적협약(VA) 체결기업에 대한 지원한도를 종전의 사업장당 30억원 이내 업체별 80억원 이내에서 사업장당 50억원 이내 업체별 100억원 이내로 완화하였다.

또한 지방소재 업체들의 대출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의 시·도 지사에서 추천받을 수 있는 품목을 현행의 48개 품목에서 107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하였고, 금액제한도 종전의 2억원(보일러는 5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등 각종 사업별 자금지원 규모에 대한 한도규정을 완화하고 지원절차를 개선하였다.

자금 수요자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심야전기보일러 등 축열식 난방 설비개체를 위한 자금대출시 종전에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추천을 거치도록 하던 것을 수요자들이 금융기관에서 직접 대출받을 수 있도록 간소화했고,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공동주택 ESCO시범사업 등에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직접 ESCO사업을 수행할수 있도록 했다.

전국 93개 시·군에 LNG공급 확대 2010년까지 4조8천억원 투입

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4조 8,000억원을 투입, 전국 93개 시·군 단위까지 천연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 37.2%가 값싼 도시가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장기 안정적인 가스공급과 저장을 위해 대형 저장탱크 37기를 추가 건설, 저장능력을 86만톤에서 252만톤으로 늘리고 통영 LNG 생산기지를 2002년까지 완공, 영·호남 지역에 대한 천연가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환위기 이후 지속되어 온 공급과잉 현상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신규도입을 억제하고 기존 계약물량만 도입, 수급안정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